

보도시점 2026. 8. 4.(화) 15:00
(2026. 8. 5.(수) 조간)

배포 2026. 8. 4.(화) 09:00

과기정통부·신한금융그룹, 취약계층 AI·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힘모은다

- AI디지털배움터 구축·확산 및 디지털 강사 양성·금융 교육·디지털 금융범죄 예방 등 협력 강화

【관련 국정과제】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4일(화) 서울 은행회관에서, 신한금융그룹과 ‘디지털 취약계층 AI 역량 강화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I디지털배움터(69개소)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법 등 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해 왔으며, 올해는 생성형 AI 실습 등 AI 기본역량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및 모바일 뱅킹 등을 교육하는 교육센터인 학이재*(4개소)를 운영하며, 디지털 금융교육 및 금융범죄 예방에 기여해 왔다.

※ 신한금융그룹은 4곳(인천, 수원, 부산, 광주)의 학이재를 운영 중이며, 과기정통부는 인천 학이재를 AI디지털배움터로 지정

과기정통부와 신한금융그룹간 이번 업무협약은 AI 전환이 가져오는 사회 경제적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고, 날로 지능화되는 스미싱·딥페이크 사기 등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아래 마련되었다.

과기정통부와 신한금융그룹은 안전하고 포용적인 AI·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AI·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AI디지털 배움터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으며, 향후, AI디지털배움터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한금융그룹은 전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유희 공간을 AI디지털배움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AI·디지털 전문강사(AI·디지털 튜터 등) 양성에 협력한다. 과기정통부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신의 역량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감을 갖춘 AI·디지털 강사 약 1,000명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전문강사 양성과정에 금융 교육 분야 전문 교수인력 지원과 현장의 노하우가 담긴 금융 안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셋째, 수준별 AI디지털 교육 콘텐츠와 금융 안전 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과기정통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단계별 AI·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신한금융그룹이 개발·제공하는 실생활 밀착형 금융 교육·금융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활용한다. 아울러,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의 대표 모바일 플랫폼 내에 'AI디지털배움터' 교육 신청 경로를 연계하여 다양한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는 "AI 시대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차별없이 AI·디지털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AI디지털 배움터와 같이 모범적인 민관협력 사례를 발굴·확산하여 국민 누구나 첨단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은 "AI·디지털 교육은 단순히 기기 사용법을 알려 드리는 것을 넘어 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 일" 이라며, "그룹의 온·오프라인 금융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누구도 디지털 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책임자	팀 장	정준욱 (044-202-6150)
		담당자	사무관	한준희 (044-202-6152)

